

아파트 유토피아



진성오 교수
심리카페

집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물리적 피난처이자,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인간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갖는 긍정적 유대감을 '토폠피리아(Topophilia)'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토포는 일종의 지형이나 장소 혹은 모양을 의미하고, 필리아는 사랑을 의미한다. '장소에 대한 사랑'쯤 되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간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집',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토포필리아를 넘어선다. 그것은 생존의 증표이자 성공의 척도이며, 나아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호'로 작동한다.

우리는 집에 대한 열망이 때로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멀지 않은 신문과 방송에서 목도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원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특정 지역의, 특정 브랜드의 아파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는 일종의 페르

조나', 즉 사회적 가면이 된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말한 페르조나는 본래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지만, 이 아파트라는 페르조나는 때로 개인의 내면을 잠식한다.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과 동일시되면서, 원하는 집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심지어는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집은 더 이상 안식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 없는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는 불안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다. 외국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임상으로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남과 강북은 그냥 장소가 아닌 한국 계급의 '토포하이아라키'이다.

강남의 어떤 지역에 사는 고3 학생을 상담하면서, 강남을 벗어나는 것을 계급의 저하로 표현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장한 그 청소년이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서울의 어느 명문대에 입학하고 나서 자신이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알려주는 과장을 입는다는 현실은 임상으로 서 뭐가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지 않은 젊은 자기 정체감의 모델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한국인의 유별난 아파트 사랑은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집단적 경험은 '안전'과 '안정'에 대한 강력한 무의식적 갈망을 낳았다. 반듯하게 구획된 대단지 아파트는 이러한 집단적 불안을 해소해 줄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상징물이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러한 집단 심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는 생존자들에게 마지막 유토피아이지만, 그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디스토피아로 변모한다. 이는 '우리 아파트'라는 경계가 어떻게 외부로 향한 혐오와 내부를 향한 맹목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맹목은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가 유토피아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본래 집은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밖에서는 과장이고 선생님이자라도, 집에서까지 그 페르조나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파트가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집 안에서조차 온전히 쉬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안전한 휴식을 얻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성벽의 높이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꿈의 집



기지수첩
성채리
(건설부동산부)

기안84가 또 이상한 집을 만들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대환장 기안장 시즌2'의 숙소다. 현관 문고리 위치는 배구선수였던 김연경의 키보다 높고, 부엌 싱크대는 욕조로 변한다. 겉보기엔 평범한 자취방인데 집안의 모든 것을 키웠다. 기안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더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전쟁하듯 산다며 말 그대로 '큰 집'을 준비했다.

언젠가부터 '중소형이 인기'라는 기사가 많아졌다. 분양 현장에서조차 청약 결과에서도 국민평형으로 통하는 전용 84㎡보다 작은 주

택형에 관심이 쏠렸다. 작은 집이 좋아진 건 아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도 막혀 남은 선택지로 향했을 뿐이다.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287만원이다. 1년 전보다 34.2% 올랐다.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드는 현상이 '중소형 선호'로 읽혔다. 대부분의 청년에게는 그 작은 신축도 먼 얘기다. 문제는 전용 59㎡나 84㎡가 아니다. 당장 5평에서 7평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간절하다.

비싼 월세에도 좁고 불편한 방을 견디게 하는 건 언젠가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점점 아득해진다. 지난 8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67만원이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2228만원으로 한 달 새 293만원 올랐다.

지난달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용산구였다. 평균 월세가 116만원에 이른다. 직장 때문에 용산에 사는 한 친구는 가끔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한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고시원과 비슷한 크기의 원룸을 견디는 경우도 있다. 월세를 더 내고 방을 넓히려 면 저축할 돈이 줄어든다. 전세보증금을 모으려면 좁은 방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 당장의 숨통을 틔우는 일과 다음 집을 준비하는 일이 서로 발목을 잡는다.

기안장의 설계 철학을 들으며 어릴적 꿈꾸던 집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살고 싶은 집'을 물으면 스케치북에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그리는 했다.

누군가에게 꿈의 집은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다. 누군가에게는 '내 집'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 한두 명을 더 들일 수 있는, 지금보다 한두 평 넓은 방이다.

/cr5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8월 2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60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72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84년생 새로운 일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49년생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1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고민이 있으면 혼자는 안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50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업무처리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74년생 뒷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86년생 흥정을 하면 잘 성사됩니다.



51년생 대하기 거북하던 상대와 잘 접목됩니다. 63년생 주위 상황이 호전됩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52년생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4년생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76년생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88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꼭 잡으세요.



53년생 베풀면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5년생 데이트 신청뿐 아니라 프로포즈 받기도 합니다. 77년생 믿었던 사람이나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8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4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6년생 돈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78년생 웬만하면 만족하고 진행하세요. 90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됩니다.



55년생 여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67년생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79년생 근심을 풀어버리세요. 91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56년생 남들에게 배워서기 바랍니다. 68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8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2년생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바로 복이 되어 옵니다.



57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69년생 사랑은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81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93년생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5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70년생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82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94년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5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71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83년생 동서 양방에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김상희의四季

재물을 쌓으려면

언제 돈을 벌고 얼마나 재물을 쌓을 수 있을지 누구나 궁금해한다. 재물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재성이다.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과 관련이 있는 기운이다. 하지만 사주에 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모두 갖춰야 재물이 쌓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어떤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자리를 얻으면서 재물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과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번다. 재물복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흐름이 있다. 관인상생과 식상생재가 그러하다. 재물을 끌어오는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같지만, 돈을 버는 방식과 지키는 방식은 다르다. 관인상생은 큰돈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자리가 올라가고 재물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보인다.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봉이 켄중 뛰어오른다. 업계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명해진다. 결국 그런 명성을 타고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억지로 재물을 쫓아다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식상생재는 자기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시장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재물을 얻는다. 그 방법은 자기만의 뛰어난 기술력을 서비스하거나 달변의 화술로 자기를 표출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세일즈 능력이 좋으므로 활동을 늘리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재물로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팔자에 좋은 재물복이 있다고 보이는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운세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5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훈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2개

결합형스도쿠110

오호호호호호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9	2	1	7	9	8
2	1	9	6	8	8	9	2
2	1	8	9	7	9	6	8
9	8	1	2	9	7	2	6
7	8	6	1	2	8	2	9
9	2	2	9	6	6	1	7
8	2	8	7	1	9	9	6
6	9	2	8	9	2	8	1
1	9	7	8	6	2	8	2

8	2	9	7	8	2	9	1	6
1	9	8	9	6	8	2	2	7
2	6	7	1	9	2	8	8	9
9	1	8	6	2	9	2	9	8
8	9	6	9	2	1	8	7	2
2	7	1	2	9	9	6	8	8
6	8	2	2	7	8	1	9	9
9	8	9	8	1	6	7	2	2